

우리나라 변소의 역사적 변천과 그 현황

The bransition and the condition of a lavatory in Korea

정 경 숙*
Chung, Kyung Sook
신 경 주**
Shin, Kyung Joo

ABSTRACT

Nowadays a lavatory an essential place in the house and located the inside of the house. But, there were few research about the lavatory so that in this study, the transition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lavatory in the Korean houses were examined by the related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

- 1) Location of the lavatory in the agricultural society was decided by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paces.
- 2) The introduction of other cultures and the change of the people's perception on the lavatory influenced the change of location of the lavatory from the remote place to inside of the house.
- 3)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and development of the drain system caused the lavatory to be located next to the bedroom in the house.

I. 서 론

변소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행위인 배변이 행해지는 장소로 오늘날은 주택속에서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민족은 변소를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이를 소홀히 여겼왔으며 또 그 자체의 취기때문에 변소를 되도록 주공간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왔다. 그 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설비 및 건축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변소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변소는 단순한 생리위생공간에서 주거속의 필수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변소에 관한 연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비롯하여 현재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까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의 주거형태를 비롯한 생활상에 대해서는 유적지 발굴 작업의 보고서, 주거문화 및 주거사 관련서적등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접할 수 있으나 변소에 관한 부분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필수생활공간인 변소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그 체계적인 연구의 시작단계로 시대적 변천에 따라 주택내에 변소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정희원, 한양대 가정관리학과 강사.
** 정희원, 한양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II. 시대적 변천에 따른 변소의 형태

1. 원시시대

원시시대에 대한 자료는 어떤 문서가 아닌 그 당시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얻어진다. 구·신석기시대의 유적 발굴작업에 의해 당시의 주거형태는 연구보고서나 관련저서에 알려져 있으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디서 배변행위를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장소가 동굴이나 원시적인 수혈주거였음을 미루어 배변은 특정 지정 장소가 없이 그대로 들이나 산에서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후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사회의 발달로 큰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주택은 수혈구조의 형태였다고 알려진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각 주거속에 변소를 구비하기 보다는 집들이 둘러싸인 중앙에 공동변소를 만들어서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역시 그 공동변소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삼국지 후한서에 따르면 읍루사람들은 방안에서 변을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우리민족이 과거에 실내에서 이용하였던 요강과 같은 형태의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청동기시대의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이와같은 용기를 실내에서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다.

2. 고대주거

고구려의 벽화등을 통해서 그 당시의 난방방식, 부엌, 외양간등에 관한 자료는 얻을 수 있으나 그들의 배변 및 목욕 행위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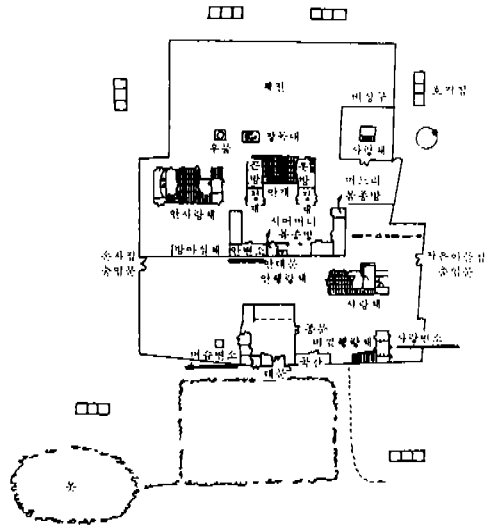
삼국중 유일하게 신라시대의 주생활에 대한 자료중에서 변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바닥에 돌을 깔아서 만들었는데 현재에도 분묘 탕크인 석구가 경주 시내 성터에서 발견된다. 신라 극락전 앞마당의 석재는 돌확 앞쪽으로 구멍이 뚫려있어서 물을 부으면 지저

분한 것이 씻겨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부어 오물을 닦아내렸을 것이며, 이것은 신라시대 여인들의 소변기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문화생활, 주택의 크기와 위치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생리위생공간에 관한 자료는 역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3. 근세주거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윤리관의 영향인 내외법에 상류주택의 경우, 남자의 생활공간인 사랑채와 여자의 생활공간인 안채가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변소도 여성전용의 안변소(내측)와 남성전용의 바깥변소(외측)로 별도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그림 3-1> 외측은 사랑채옆 모

<그림3-1>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평면도



퉁이에 두었고, 내측은 안채옆 행랑채에 세웠는데, 전자는 주로 바깥주인과 신분이 높은 접객이 이용하였다. 이 당시의 변소는 바닥이 1m 정도 높아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야 출입이 가능하며 널벽을 내부에 세웠고, 변소의 내부에는 쌀겨를 쌓아두어 변소의 사용후 쌀겨를 뿌려 덮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쌀겨변소는 80년대초까지도 절이나 선사에 일부 남아 있었다. 바깥사랑채에 있는 머슴변소는 바깥 행랑채에 거거하는 하인과 외부인중 하위의 신분에 해당하는 이들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

아 이 시대에는 변소의 이용과 형태에 있어서도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신분과 남여의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도 축간의 수와 그 형태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민가에는 마땅히 축간을 세개 설치해야 하는데 하나는 안채, 다른 하나는 바깥채에, 또 다른 하나는 담장밖의 발걸에 두었다. 축간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널로 벽을 만들며 지붕은 회로 덮었다. 축간은 나무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게 만들었으며, 기둥의 발부리에서 석자정도 떨어진 곳에 마루널을 설치하였으며 마루널의 한가운데에 타원형의 구멍을 뚫었다. 구멍의 아래에는 긴자루의 나무가래를 놓아 두었으며 가래짝을 내변에 현처럼 일으켜서 그 안에 모래와 흙을 담아 변을 받게 하였다. 매일 흙덩이처럼 뭉쳐진 변을 들어내어 담장밖에 있는 축간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이 당시의 변소는 쌀겨이외에 모래와 흙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민주택의 경우는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함경도 지방에서는 변소를 본체와 떨어진 담장옆에 세웠으며, 평안도 지방과 제주도 지방에서는 변소에 돼지우리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주로 남성 전용이었다고 한다. 제주도의 돼지변소는 현재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성읍마을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가정에 드물게 아직도 남아있다. 돼지변소는 그 지방에서 분뇨를 직접 사료로 이용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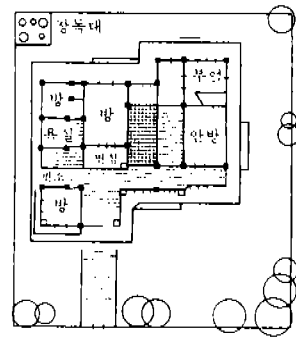
이후 주택 내부에 변소가 도입되기 이전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밤에 밖으로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요강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4. 현대주택

한일합방이후 일본식 적산가옥의 건설은 주택 내부에 자리잡은 변소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설비시설의 미비로 쉽게 우리나라의 주택에는 쉽게 도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래식 변소의 문제점들은 1920년대의 동아일보에서는 변소악취 제거법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변소청소를 자주 하자는 기사가 실려있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후 우리나라 건축가의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1937년 조선풍 주택설계의 당선작에 변소가 실내에 갖추어 진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그림 4-1> 경운동 민씨가의(1938년 건립) 평면에서도 변소가 실내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1> 1937년 조선풍 주택설계의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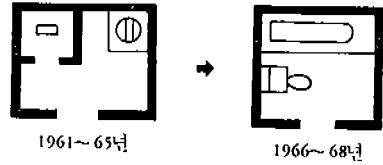
서민주택내부에 변소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세워진 주택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주택을 개량하여 한국식을 가미한 최초의 양식주택으로 변소가 실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록 변소의 취기와 위생상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했지만, 하수도 시설미비로 그 처리방법은 재래퍼내기식을 벗어나지 못하여 오물퍼내기에 따른 더러움만은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1945-1956년사이 영단에서 건설한 흙벽돌 주택중 소형주택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변소를 본체에서 분리시켰으며, 변소가 본체에 붙어있는 경우도 현관을 나가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거나 전실을 둔 것이 특징이다.<그림 4-2>

1959년에 세워진 불광동의 15평형 도시형 국민주택의 변소에는 일반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대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특히 방문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관입구에 있었다.<그림 4-3> 일반적으로 60년대부터 변소가 욕실에 가까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점차 마루에서 직접 출

1) 則室宜高敞明朗不宜低暗幽深
人家宜置三則，一在內外舍，一在外舍，一在垣外出隣
之側其在內外舍者木柱板壁。
灰盆距柱三尺以上設廳板前設木梯以登降廳板正中守
階圓穴穴下置
長柄木枕枕屎四週內貯沙每日搬土缸每日搬蓋輪于垣
外之則。

<그림 4-2> 조선주택영단의 표준설계도

類別	圖 面	坪數 및 間數
甲		- 20坪 3 間 4 間 4 間 3 間 (以外 10 種類 있음)
乙		- 15坪 3 間 4 間 4 間 (以外 9 種類 있음)
丙		- 10坪 2 間 4 間 4 間 (以外 3 種類 있음)
丁		- 8坪 2 間 4 間 4 間 (2 種類 있음)
戊		- 6坪 2 間 4 間 2 間 (2 種類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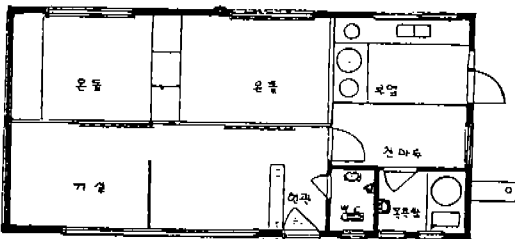
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4-4>

변소가 피내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뀐 것은 아파트의 건설이 계기가 되었다. 1962년에 세워진 마포아파트에 좌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사용법을 모르는 입주자들이 많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공영주택에서 변소를 현관에 위치하여 분리하던 것과는 달리 아파트에서는 변소가 침실과 인접한 곳에 마련되어 실사용이 편리해져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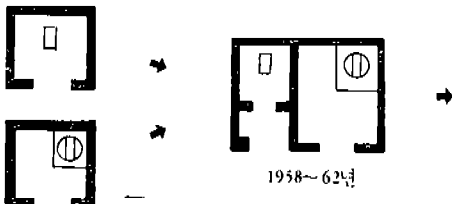
수세식 변소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반수세식 변기가 개발되었다. 1965년 세워진 일부 외인주택과 화곡단지내 국민주택내의 변소는 상수도에서 직접버려지는 오수를 저수탱크에 모아 두었다가 배변후 변소내에 설치된 페달이나 핸들을 작동시켜 그 물을 분뇨 세조 용수로 사용하였다.

1981-1990년 10년동안의 수세식 변소의 보급율을 살펴보면 1981년에는 전체 가정의 약 12%가 수세식 변소를 갖추고 있었는데 비해 1990년에는 약 50%의 가정이 수세식 변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약 48%의 가정이 여전히 재래식 변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수세식 변소가 갖추어져 있는데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약 37%만이 수세식 변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수세식 변소가 갖추어져 있는데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약 37%만이 수세식 변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불광동의 15평형 도실형 국민주택



<그림 4-4> 변소의 실내 정착과정



1954~58년

<표 4-1> 수세식 변소의 보급현황

		(%)		
		1981년	1985년	1990년
지역 별	전국	12.3	33.1	51.6
	시	19.6	54.4	64.5
	군부		7.2	14.3
주택 형태 별	단독주택		16.8	19.6
	연립주택		99.3	21.9
	아파트		87.5	76.9

II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주택내에서 변소의 위치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농경시대에 변소는 그 유용성에 따라 갯간이나 퇴비장과 인접해 있었다.
2. 외래분화의 유입 및 설비시설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변소는 본건물과 인접한 곳에 설치되었다.
3. 아파트의 도입과 배수시설을 비롯한 설비의 발달로 변소는 완전히 주택내부에 자리잡게 되었으나 아직도 전체인구의 약 50%는 재래식 변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세식변소의 보급율이 77%인데 비해 단독주택 거주자의 약 20%만이 수세식 변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아파트의 생리위생공간의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 재래식 변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앞으로 사적 연구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보다 쾌적한 생리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성우, 안대회, "임원경제지", 「건축과 환경」, 1989.
- 김종인, 「주택 주택지 학교」, 대광서림, 1978.
-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 40년사」, 1986.
- 서유구저,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역, 「임원경제지」, 보경문화사, 1983.
- 손정육, 「조선시대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 신복통역, 「은자의 나라」, 한국, 탐구당, 1978.
- 신영훈, 「한옥과 그 역사」, 한국건축사대계, 1975.
- 유항문, "한국 중산층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73.
- 이민구, "공동주택의 사후평가", 「주택」, 47, 1986.
- 이병우, "도시주거 주생활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6.
- 최병우, "한국전통건축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